



SARANG

시론 02

현대건축에서 전통건축요소가 필요한 이유

독자광장 03

책 소개 _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한 편의 시 _ 수채화 작업

한 장의 사진 _ 생텍쥐페리 TGV역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임원하계워크숍 성료

광주건축사회,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작품 모집공고

광주건축사회·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친선교류전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진행

전남 화순군, 제3회 건축사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 석정힐CC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주지역건축사회,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 냉장고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진 피해 건축물에 2차 안전점검 실시

전라북도 김제시 금만 건축사사무소, 200만원 성금 기탁

특별기고 10-11

광주에서는 제도 때문에 건축을 디자인할 수 없었다.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2

제2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제21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제2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07.17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현대건축에서 전통건축요소가 필요한 이유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로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
교수, 출강
- 전남 사찰, 고택, 향교,
관아를 15여 년 간
300여 곳 답사함
- 국립 순천대 평생교육원
에서 한국학, 전통문화
탐방지도사 과목을 강의
- 전남도 한옥자문위원,
순천시축제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전문위원
- 논문 : 건축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2002, 순천대)
- 저서 :
『좋은한옥』
(2012, 전남도청 공저)
『다시읽는 순천인문학』
(2018, 늘보기책)

전통건축에 배어있는 사상·철학을 현대건축에 담아낼 수는 없을 까? 물론, 담아낸 건축사도 있을 것이다. 지난날의 전통사상과 새로운 사상과의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의 건축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1910년 후 한일병탄의 시기를 거쳐 광복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 전통사상의 단절과 가치관의 왜곡은 심하게 이어져 왔다. 광복 이후에도 서구의 물질문명은 전통건축사상의 체계적 연구와 정립의 시기 없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혼란기를 거치면서 비판의식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은연중에 강요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더했다.

이것은 전통의식과 문화를 낳은 것으로, 서구의 것을 새것으로 인식했다. 주체성을 상실한 서구문명동경의 사회동조와 함께 국적 없는 건물을 양산해 낸 셈이다. 이는 우리의 주체사상 단절과 그로 인한 각 사회가치관의 왜곡이었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20세기 이전 수백 년간 역사의 흐름은 수직적 지배체계였던 고려의 귀족사회와 조선의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반상사회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건축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도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사찰(불교)건축과 반가(유교)건축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로써 박수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은 조선시대 모든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생활·감정 등의 집약된 표현체이다. 집이란, 이처럼 인간학적으로 가장 기본요소이며 모든 건축의 규범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솔직한 견해로 우리선조들의 일반 서민주택은 초가삼간이란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어져 왔음은 사실이다. 다만 조선시대의 상류주택만이 비교적 발전된 주택양식을 지니고 있으니, 전통건축의 요소를 현대건축에 적용하는 매개체로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아야겠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됨에 따라 사상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려 후기 안향(유, 1243~1306)에 의해 중국(원)에서 들어온 주자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치이념으로 채용됐다.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일반백성의 일상생활규범으로도 정착되었다. 주자학에 의한 조선의 유교(성리학)사상은 조선후기 때는 사회전반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가 유교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성장해 왔다. 그 주체자는 사대부들이었다.

조선시대의 사회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것도 가부장적인 대가족제도였다. 이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세대가 동거하는 형태이다. 이런 주거형태가 주택건축에 영향을 미쳐 대가집에서는 여러 세대가 동일주택에 주거하게 되었기에, 보다 넓은 건축공간이 필요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남녀를

구분하고, 행랑채로 신분위계를 갈랐다. 이런 결과로 채와 채의 분할이 생겼으며, 채의 앞 공간에도 '비움의 상징'인 각각의 마당이 조성되었다. 또한 효를 바탕으로 한 유교철학은 생존한 부모에게 국한하지 않고, 죽은 후에도 효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제사의례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식이 모여 후손들의 길흉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신앙이 되었다. 이것이 주택건축에 나타난 가묘제(家廟制)이다. 이 가묘제는 점차 일반화되어 적어도 중언계급 이상에서는 별동으로 사당을 건축하고 신위를 모셨다.

유교의 가치관은 자연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 세상 이외의 어떤 초자연의 세계나 정신계가 따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상이나 건축이 인간적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큰 능력, 즉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천지에도 마음이 있고, 초목에도 마음이 있음은 인간에게도 마음이 있음과 같다."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유교의 가치관은 자연에 대한 겸손이 저변에 깔렸다. 이것은 천지만물과 인간의 본질이 같음을 뜻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것을 제외하고,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음과 양의 이치로 이질이다. 그런데도 우주(큰집)라는 하나의 큰 틀로 움직이며 잘 살아간다.

이것이 우주의 균형과 조화인데, 그중에서 사람이 사는 집도 한 부분이다. 유·무형적 존재는 모두가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기(氣)의 요소로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이면서도 서로가 배타적이 아닌 일체보완의 관계로 맺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건축조영사상에서도 특별하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역시 자연과 동일시했다. 이 개념을 구체화시켜 담은 대상이 건축물인 것이다. 이는 건물과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방식으로써 관계가 아닌, 그 공간 안에 생장렴장(生長斂藏)의 삶의 순환이 들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 간의 애환, 그리고 사는 사람과 교감을 하는 생명체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집은 기를 모으는 곳이며, 자연 대 인간의 상호교감을 돕도록 하자는 것이 집의 목적이자, 재화로서의 목적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러한 유교의 자연관은 자연-인간-건물이 일치되는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즉 유교사상에 나타난 자연관을 현대건축에 적용시켜 구체화하는 개념으로써 동양사상·철학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대자연과 건축물의 교감 말이다. 당연히 자연과 함께 사상·철학이 담긴 그런 건축을 건축사들은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자연과 인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양오행설의 근본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말하는데, 그 안에 건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다면, 집은 소우주를 담은 그릇과 같으므로.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수,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선,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중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40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 원고마감 : 매달 5일
-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강미현, 권세란, 김명진, 김선임, 김진희, 손숙희,
육광돈, 윤미순 공저

전북에서 시작된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전
북 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후
배 건축사들이 선배 건축사의 작업과 삶을 기록하는 것
으로, 지역에서 건축사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건축 불모
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도시를 만들어낸 건축사들의 이
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건축을 꿈꾸기 전부터, 선배들은 지역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
켜왔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의 문화와 발전 과정을 형성하는 역사로, 이 기록은 건축사뿐
아니라 도시를 누리는 모든 시민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0명의 선배 건축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했으나, 실제 더 어려웠다. 기록 작업이 처음이었던 우리는 '우
왕좌왕'했고,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하려는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부터 시작했다. 서로의 바쁜 업무 때문에 일정 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전이다. 선배 건축사들과 나눈 대화를 문서로 옮
길 때 내용의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여러 번의 검토 과정
을 거치고, 인터뷰 내용의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

가장 힘든 것은 선배 건축사들의 취재 거절이다. 많은 선배님이 '자신은 충분한 작품을
하지 못했다'라며 참여를 고사한다. 지면을 빌어 선배님들께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최선을 다한 삶의 일부를 조금만 보여달라고...'

이렇게 우리 후배들과 선배 건축사들이 합심하여 기록집이 나올 수 있었다. 건축사로서
화려했던 시기와 힘들었던 시기, 애정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
기는 후배들에게 건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되고, 선배 건축사들의 이야기가 후배
들에게 영감을 주며 다음 세대에게 자산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건축사가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에 책을 받아본 많은 선배와 후배 건축사들은 격려를 보내주었고, 다음 책
자에 대한 기대를 전해왔다. 이에 올해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
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축사 개인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선배 건축사들의
작업을 기록하며 그들의 노력과 지역의 건축문화를 기리는 중요한 작업이다. 모든 기록은
사실에 기반해 정직하게 작성되며, 선배 건축사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작업을 정확히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 많은 후배 건축사들이 참여하며 프로젝트를 더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단
순한 기록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 지역의 많은 건축사가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지역마다 건축 관련 기록의 갈증이 느껴진
다. 이에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전북특별자치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
발로 이루어지며 우리 건축사 기록이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家 일동은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에 대한 깊
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의 두 번째 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家 강미현, 강이건, 권세란, 김명진, 김문호, 김선
임, 김종왕, 김진희, 류나라, 손숙희, 육광돈, 윤미순, 조찬희 등 13인이 참여
하고 있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수채화 작업

잔잔한 호수 위에
살포시 올라온 연꽃
어떤 멋진 그림 그럴까

유월의 막바지에
아침 이슬에 흠뻑 젖어
붉은 물감 붓 끝에 담아
잠시 명상에 잠긴 수면

뽕죽한 붓 끝에 온 마음을 담아
수면 위에 흐르는 바람 따라
연분홍 꽃이 피어나리라

두 팔을 활짝 벌려
떠오르는 햇살을 온몸에 담고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며
날카로운 붓대 휘둘러다 보면
어느새 활짝 핀 미소로
연꽃 위에서 춤을 출 것이니

입술로 잘 다듬은 연꽃
흐르는 바람결에 매달려
홍조 띤 모습으로 붓 끝에 붙여
마음껏 일팔휘지하리라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생텍쥐페리 TGV역

프랑스 리옹 / 2023년 8월 13일

구례군 문척활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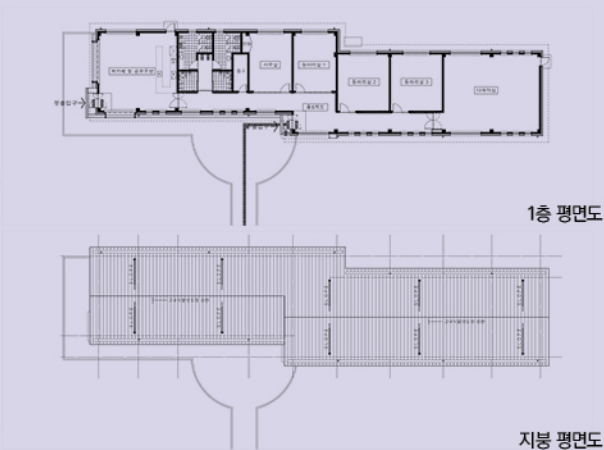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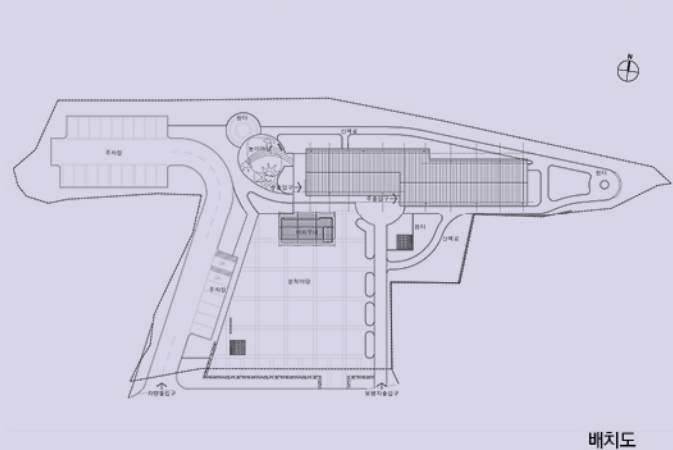
정인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휘건이엔지(주)
광주 북구 독립로367번길 40-3
Tel. 062-572-0527



대지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315-1 / 대지면적 : 5,415.00㎡ / 건축면적 : 462.00㎡ / 연면적 : 462.00㎡ / 건폐율 : 8.53% / 용적률 : 8.53%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주민공용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조적



구례군 문척면에 위치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민행복센터이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각 실에 대한 다목적성을 기본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 BF본인증(우수등급)까지 취득하였다. 외부활동을 위한 문척마당 및 아이들 놀이터, 산책로를 두었으며 센터의 배면은 노고단을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으로 주민들의 쉼터와 배움, 나눔의 소통공간에 지리산의 풍경을 더했다. 비대칭과 대칭의 박공지붕 높이차를 활용해 두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우물천장을 두어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켰다.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유지보수비용 절감(내부삭성)
건축물 수명 100년 이상
저탄소 제품
철근 대비 탄소배출량 45% 저감
일반 철근 대비 자재비 절감

시공사

중대재해 ZERO(낙하, 감전)
철근 대비 1/2 중량
회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시공비용 절감(인건비, 장비비)
물류비 절감(철근 대비 200% 운반가능)
길이별 제작 가능(2m~12m)

건축사

지구환경 보존 지대한 기여
친환경 리사이클링 자원순환
사회구성원 보호(근로자)
경량화 자재로 안전사고 예방
만국건설순환자원 학회 인증
녹색인증(국토교통부)

근로자

근골격 질환 예방
(경량화)
작업피로도 감소
(열차단성)

설계(원가절감VE)시 경제성 무료 검토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임대중 대표 / 국내총판
M. 010-3484-2886
T. 061-371-1233
www.kcmt.co.kr

광주건축사회, 지난달 28일 임원하계워크샵 성료
전남 광양시 일원... 역대 회장, 임원진, 위원회 위원장 등 33명 참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28일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2024년 임원 하계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광주건축사회·광주건축사신문협동조합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등 33명이 참석하였

으며 광양 포스코 제철소와 와인동굴, 전남도립미술관을 투어 및 관람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임원하계워크샵은 임원진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광주건축사회가 발전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작품 모집공고
오는 8월 16일까지 작품접수, 2021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 대상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오는 8월 16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인 건축사회원전에 출품할 작품을 모집 공고했다. 출품작품은 2021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로 출품자격은 광주건축사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작품규격은 JPEG 또는 PSD 파일 (A1사이즈 594mm x 841mm)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접수는 출품신청서와 함께 gjkira@empas.com을 통해 무료로 접수가능하며 제작된 작품은 전시회 종료 후 찾아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49803번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매년 지역 건축인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건축 문화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는 행사이다.

광주건축사회·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친선교류전 개최
지난 6월 21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지난 6월 21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친선 교류전이 개최됐다. 이날 교류전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현군출 회장을 비롯한 바둑동호회 회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10개 조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친선 교류전을 가진 후 만찬 간담회에서는 양 시도건축사회 친선교류 증진 및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광주·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교류전은 바둑을 통해 광주·제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조선희 법률자문위원회에 조선희 변호사 재위촉
지난 6월 17일 제6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재위촉 의결... 임기 1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17일 제6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조선희 변호사를 1년 임기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 의결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수료하였으며, 현재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전라남도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과 광주고등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 개최
7월 3일 전남대 공과대학 영명홀에서 진행...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24 졸업작품(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공학전공)이 지난 3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유창균 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광주전남건축가회 이순미 회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조창근 회장을 비롯한 건축학부 교수님과 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하였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건축 졸업작품전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건축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은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http://soacnugallery.com>)를 통해 12월 31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광주광역시는 광주 지역의 건축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상무관, 중앙초등학교, 광주월드컵경기장, 충장로우체국, 염주종합체육관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광주 지역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축자산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말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자산 유지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건축자산 시행계획에는 기본방향과 기초조사 및 보존·활용의 체계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련법 조례 개정 등 주요 사업과 세부계획 제안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자산 후보군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등 단계별로 기초조사를 거쳐 광주 지역 533건의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역사·예술·경관적 가치와 광주만의 전통·이미지·정신 등이 스며든 광주다움 등을 평가해 우수 건축자산 후보군 30곳을 선정하고, 광주시 소유 공공건축물부터 등록할 방침이다. 또 건축자산 후보군 건축물 소유자가 광주시에 우수자산 등록을 신청하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광주 회원동정

•입회

- 나기용 건축사 / 마루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67, 5층 503호
- 김수정 건축사 / 도리스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변영로 10, 3층
- 최선용 건축사 / 광주대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호심관 1827호
- 염하윤 건축사 / 일월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41, 1316호
- 박형주 건축사 / 사월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45, A동 1109호

•변경(소재지)

- 조희정 건축사 / 정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18, 나동 102호

•결혼

- 유승희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8월 3일(토)

•부고

- 최경락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6월 24일(월)
- 김영전 건축사 / 아토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7월 3일(수)



돌멩이
김지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벚
전남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22-39, 1층
Tel. 061-901-1236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85 / 대지면적 : 29,574㎡ / 건축면적 : 412.54㎡ / 연면적 : 637.43㎡ / 건폐율 : 1.39%
용적률 : 2.16%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전남 고흥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총 23억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전남 고흥군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유치해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로 인한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창호 단열, 냉·난방 설비 등을 보수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토부 시책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노후된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희망 건축물 조사를 시작, 2024년 4월 국토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해 지난 6월 14일 풍양보건지소 등 보건진료소 6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이 유치됨으로써 관내 보건진료소 6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올해 설계를 완료 및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 화순군, 제3회 건축사 간담회 개최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



(사진 = 화순군청 제공)

화순군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및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3회 화순군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순군이 202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개선과 바른 인허가 방향 제시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 개발행위 공사 현장 안전사고 대비, 건축조례 개정 사항 안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화순군은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에 따른 세부 사항 안내,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취약지역 공사 현장의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구북규 군수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전남도에서 현저히 낮게 책정돼 지급하고 있음을 참작해 전남도 보통 수준으로 인상한 건축조례 개정으로 힘든 건

설경기에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군민들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건축사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성실히 업무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순군과 건축사 간담회를 가져 토론하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으며,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석정힐CC와 업무협약 체결

전남회원들에게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제공...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는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석정레저(석정힐C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회원은 석정레저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일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오천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 최종 선정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문화시설로 생활편의성 향상 기대...



(사진 = 센터 구상도,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천산단 내 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45억여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40억, 도비 5억여원 등 총사업비 57억여원을 투입해 오천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인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1,519㎡ 부지 내 지상 4층 규모로 특산물전시판매장, 사무실, 구내식당, 헬스장,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민이 문화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이들의 생



포레스트 뷰와 정원을 가진 대지에 수석에 대한 애정을 가진 건축주와의 만남은 매우 흥미로웠다. 가장 먼저 마음에 각인된 “돌맹이”. 이 객체를 형상화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넓고 길게 펼쳐진 창은 수석박물관의 정원과 자연이라는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자연적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를 선택하였다. 창호를 제외한 모든 마감재는 노출콘크리트를 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였다. 자유로운 외부 곡선은 중앙으로 집중시켜, 사람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내부 동선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내부에 들어서면 사선으로 보이는 계단은 시각적인 연결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2층으로 향할 수 있게 하였다. 1층과 2층 정원을 볼 수 있는 창호 및 기둥을 액자로 생각하고 자연물을 눈높이에서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돌맹이”가 카페 오곡과 함께 그 자체로도 작품이 되길 희망해본다.

활판의성 향상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오천일반산단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내달 31일까지 진행

공모대상... 전남도 공공건축·공공공간·공공시설물디자인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의 브랜드 가치 및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디자인 발굴을 위해 ‘우리가 GREEN 전남’이라는 주제로 ‘제9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을 공모한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친환경디자인상은 차세대 디자인산업 육성을 이끌 학생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남의 친환경 자원과 디자인을 융합,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디자인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공모대상은 전라남도 지역에 적용 가능한 공공건축 또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아이디어이다. 공공건축은 전남 수도권 복합공간 조성(서울 일원/대상지 자유)이며, 공공공간은 전남도 내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장소의 공간 또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jeongsora89@korea.kr)로 이메일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

2027년까지 전망타워를 겸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



(사진 = 진도군 제공)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72억과 도비,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해 지산면 세방낙조 일원에 전망타워를 겸한 아트문화타워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 진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다도해, 낙조, 해안선 등을 살려 표현한 세방낙조 문화공원과 함께 바다와 낙조가 이어진 듯한 장관을 통해 진도의 새로운 해안 경관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낙조의 경관을 건축물에 나타내고 관광객의 동선을 아름

다운 낙조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각적인 재미와 흥미를 위해 건물 외부 벽면에 미디어파사드와 내부공간의 전시·체험거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전체를 아우르며 순환되는 데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이기성 건축사 / 이기성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F동 206호
- **변경(소재지)**
- 박수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동행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도청프라자 1305호
- **퇴회**
- 정 도 건축사 / 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영산로 93-1, 3층 355호
- **부고**
- 한만호 건축사 / 한성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6월 28일(금)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법정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반석기초이앤씨(주)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육광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담
전북 전주사덕진구 숭정리2길 19-5
Tel. 063-275-2051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02-7번지 / 대지면적 : 30,032㎡ / 건축면적 : 1,517.36㎡ / 연면적 : 2,133.28㎡ / 규모 : 지상 2층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청소년자치공간)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2층 일부) / 건축물높이 : 11.43M



전주지역건축사회,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 냉장고 후원

전주지역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사진 = 전주지역 건축사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지난 27일 (사)전주시 장애인정보교환센터에 12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한 냉장고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기수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장애인정보교환센터 회원들에게 안전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역건축사회는 10년 이상 사용해 온 냉장고의 고장으로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냉장고가 고장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복 전주시장장애인정보교환센터 부회장은 “이른 무더위에 김치 및 식재료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을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 건축 기술의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과 건축 상담 재능기부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진 피해 건축물에 2차 안전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 합동 점검반 구성



(사진 =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들로 구성된 1차 안전점검에서 ‘사용상 유의’ 판정을

받은 건축물 20개소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관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무상으로 건축물과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주요 구조부 균열과 변형 상태, 지붕·내외부 누수 상태 및 지반부 등 침하 여부,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외장재 손상 여부 등을 점검



The 큰일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동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삼성 자이언츠파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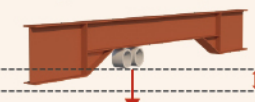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대지면적 : 6,930㎡ (2,1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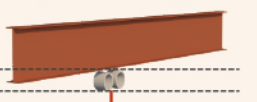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대지면적 : 7,189㎡ (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차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원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화한 4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사기간
단축

구조기술사협회
기술인정서보유
(1998년 제정)

The 큰일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 대 곤

본사·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





“ 읍내로 신축, 이전되고 남은 학교는 과거의 기억을 갖고 청소년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삶과 꿈과 삶과 온이 만드는 새로운 마을이고자 한다. 청소년을 위한 작은 자치마을은 첫째. 다양한 실내외 공간 만들기, 둘째. 친환경적인 건축 환경 만들기, 셋째. 지역과 자연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센터 만들기. 3가지 전략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창의적이며 자유롭게 다채로운 공간을 경험하도록 하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고자 한다.”



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배·분전반 파손, 절연 및 누전상태, 가스 분야에서는 배관 연결 상태 및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번 안전점검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만 건축사사무소, 200만원 성금 기탁

해마다 김제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나눔실천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김제시 드림스타트에 200만원을 기탁하는 나눔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만 건축사사무소 류충렬 건축사는 지난달 김제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200만원을 기탁했다.

류충렬 건축사는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류충렬 건축사는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서비스 지원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될 것을 기대...

군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서비스를 연중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건축물 현황도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황도를 공무원들이 수정·작성해 준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기존 현황도가 존재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동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현황도 수정·작성을 지원해 준다.

그간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 내 표시변경 신청 시 건축사 등이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들은 건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지원으로 군산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규정상 현황도는 건축사나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현황도 작성 지원을 통해 군산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참여작 공모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건축인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를 통해 건축의 일상적 가치를 되새기고 도민과 함께 미래 건축문화를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건축! 일상의 가치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북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건축문화제에서는 사용승인(일반), 학생, 건축드로잉·사진 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건축문화상 작품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도내 우수 대지 조경(단독/공동주택)공간 선정 부문을 신설하여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과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부문 상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전국의 건축전공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건축문화제 시작을 알리는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당선작은 도지사상 및 각 단체장상 수여와 함께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청 1층 로비 및 전시실에서 전시될 방침이다. 요강 및 신청서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전북건축문화제 249968번을 참조하면 된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엄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암2길 8, 401호
- **변경(소재지)**
 - 이성엽 건축사 / 아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43, 3층
- **부고**
 - 서봉욱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6월 9일(일)
 - 김태현 건축사 / 다원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6월 10일(월)
 - 이일우 건축사 / 우연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6월 27일(목)
 - 임애라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시모상 - 6월 27일(목)

광주에서는 제도 때문에 건축을 디자인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Auri 임유경, 이주경, 김준래



이창율 건축사
(주)GA 건축사사무소

• 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 현,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광주광역시의 도시경관계획, 건축물의 심의기준, 지구단위 자문기준, 상업, 준주거지역의 용도용적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등의 역, 강제로 지금까지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와 밀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12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도입하였고, 1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대폭 완화한 가이드라인을 2021년 11월 3일 훈령으로 공포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특화설계, 우수디자인”을 요구한다. 임의규정에 묶여 도시와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없는 제도에서 지금은 건축가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공포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서론과 개요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경제와 건축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크게 건강하게 될 것이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장 서론

2005년 12월에 출범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법」의 규정 일부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 시행 이후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지에 70개 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공동주택단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지정신청 권한을 다변화하고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왔다. 특히 2020년 4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정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한옥 10동 이상, 한옥 외의 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민간제도가 신설되고 특례사항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등에 대한 제도 적용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구역 지정 및 건축물 특례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심의 기준 역시 보다 정교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후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정 절차, 지정 심의 시 검토사항 특례적용 및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2장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정 연혁,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를 검토하여 규제 완화 제도로써 특별건축구역의 방향과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건축 및 우수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도입된 규제완화 제도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공동주택 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스마트건축 등 미래건축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건축 설계공모 추진 시 특별건축구역 적용방침을 발표하였다.

한편,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이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는 원래 취지 외에 사업성을 높이거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완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투자선도지구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도록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축규제 개선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언급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건축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축규제의 대표적인 양적 완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법령 개정 연혁에도 나타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일한 구역 지정권자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거치면서 지정기관, 지정 신청자의 요건, 지정 대상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 목표와 이해관계집단이 변화하였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신청기관 변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정 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지정 신청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신청기관 이외의 자

출처 :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는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는가, 두 번째는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집단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규제완화 시 도시계획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



출처 :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제18호 “특별건축구역”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제3장 특별건축구역지정 현황과 운영실태

3장에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실제 사례들의 지정 현황을 살피고 건축위원회 심의 자료를 토대로 절차적 사항과 특례 적용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특별건축구역 관련 언론보도와 함께 관계자 면담을 통해 특별건축구역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은 제도 도입 이후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구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대상 및 지정절차를 다양화하였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특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하며 특별건축구역의 성과로 나타났으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과 한계도 확인되었다.

첫째,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공동주택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부 도시지역에서만 활용되어 왔으며 90%는 공동주택으로 지역적으로나 유형적으로 고착화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다양한 유형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사업방식 다각화를 위해서는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적용 특례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특례는 조정 가능한 수준의 ‘일부 완화’로 활용된다. 지정 사례에서는 인동간격 중심으로 일부 ‘배제’ 특례 항목만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시설구조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완화’ 특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경관의 창출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수준향상과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조성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다.

지금의 특별건축구역 운영은 ‘구역 지정’과 ‘적용 특례’에 국한되어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건립 단계에 한정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성 단계뿐 아니라 조성된 이후 과정이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적용 특례’ 사항이 거주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구역 지정’의 당위성으로 사용된 공공성 확보의 후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제4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

4장에서는 2, 3장에서 정리된 제도 특성 및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향후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과 관계를 정립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특별건축구역 규정에 대한 운영 원칙은 ‘건축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웃 환경이나 도시 계획과 조화’를 전제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에 증진하도록 한다. 둘째,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도록 한다. 넷째, 특별건축구역의 이웃 대지에 대한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타법 및 관련계획을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기 수립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한다.

특별건축구역지정 시 심의 기준인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어야 한다.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경관을 향상해야 하거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건설기술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적용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여부이다. 주변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이다. 셋째, 공공성은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의 내용에 근거하여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으로 나누어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생활공간적 공공성은 안전한 생활을 위한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사회적 공공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계획이다. 문화적 공공성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조문 현황과 타법의 의제처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건축기준 배제·완화의 범위,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배제·완화 특례, 통합적용 시 도시관리계획과 관계를 규율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또는 협의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건축구역에 따른 건축기준 배제·완화가 도시관리계획 한도를 넘어설 수 있는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제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적용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수도권 저층주거지 인접구역 내 공동주택(아파트)개발, 지방도시 구도심 인접구역 내 공동주택(아파트)개발, 필지분할 단독주택개발, 필지통합 다세대·연립주택개발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배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 커뮤니티시설확보, 보행환경개선, 주차문제 개선, 가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5장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 향후 발전 방향

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정리한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을 바탕으로 특별건축구역 설계자, 지정제안자, 지정기관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석하고 예시를 담아 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도출하였다.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주관부처, 지정기관 담당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침은 총 7개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방향,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제4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5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 시

검토사항, 제6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통합적용 시 검토사항, 제7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성격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총칙이나 제도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부분, 둘째, 절차와 관련한 부분, 셋째, 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특례적용 심의 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 넷째, 지정이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자료 세부작성방법, 지정 심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특례 및 통합적용 심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특례적용(적용배제, 완화적용,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 특례적용계획서 및 통합적용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특례적용 예시와 지정 절차 예시를 별표에 수록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가이드라인의 구성〉

출처 : 연구진 작성

제도 운영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적용 범위)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특별건축구역의 운영 방향	제5조(특별건축구역의 취지) 제6조(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원칙) 제7조(특별건축구역의 심의 기구)	
절차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8조(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한 경우) 제9조(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신청한 경우) 제10조(특별건축구역지정 및 건축물의심의 동시 진행절차)	
구역지정 및 특례적용 시 검토사항	제4장 특별건축구역지정 시 검토사항	제11조(특별건축구역지정 가능 대상 등) 제12조(특별건축구역지정 시 고려사항)	
	제5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 시 검토사항	제13조(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 제14조(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고려사항) 제15조(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시 고려사항) 제16조(특례적용계획서 자료 작성)	
	제6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통합적용 시 검토사항	제17조(통합적용 가능 대상) 제18조(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 제19조(운영관리 계획서)	
지정 이후 관리	제7장 특별건축구역지정 이후 관리	제20조(구역지정 변경 및 구역지정 취소 등) 제21조(구역지정 이후 원형 유지관리) 제22조(검사 및 모니터링) 제23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제24조(유효기간)	
별표	- 지정신청 자료 세부신청방법 - 지정 심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특례 및 통합 적용심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심의 시 고려사항, 특례적용 및 지정 절차 예시 등		

향후 특별건축구역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계획과 관계를 정립하여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계획 구역 지정대상으로서 특별건축구역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건축심의 단계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양 계획 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양자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건축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다양한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건축 기술을 도입할 경우 특별건축구역지정 절차를 구체화·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기술 및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다양한 용도와 규모에서 필요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 규제·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성능 중심 건축생산방식 확대 및 건축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성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서와 고시문 등 행정문서와 건축심의자료 등 문헌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정 절차, 지정 심의 시 검토사항, 특례적용 및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운영실태 분석 과정에서 실제 특별건축구역 특례가 적용된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특별건축구역 주변 지역을 포함한 경관 변화 등 제도 적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 분석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제도 운영 방향과 절차, 지정 및 특례 적용 시 검토사항, 지정 이후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거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검토를 거쳐 2021년 09월 23일에 행정 예고되었으며, 2021년 11월 3일에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공포되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시 규제 완화 및 공공성 확보 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기술 수준 향상 등의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마련 연구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특별기고는 가급적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한 한 자의 작품에 한합니다.

시상구분

- 사회공공 부문 :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비주거 부문 : 민간 발주 건축물 중 비주거 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주거 부문 : 민간 발주 건축물 중 주거 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 부문별 시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6. 19.(수) ~ 7. 18.(목) 18:00까지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광주건축사회
- 문의 : ☎(062)521-0025~6

제21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공모주제

- “재미있는 도시 광주”
(소주제 :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공간, 내가 꿈꾸는 도시)

참가 대상 및 참가 부문

- 광주 소재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

대회 일시 및 장소

- 대회일시 : 2024. 8. 31.(토) 오전 9시 ~ 오후 2시
- 대회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24. 7. 15.(월) ~ 7. 31.(수) PM 6:00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참가신청

- 참가비 : 무료
- 참가신청서 양식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50100번에서 다운받아 접수기한 내 제출

제2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 공모전



출품작품

- 작품내용 : “내가 바라본 도시”
(2023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을 촬영한 작품으로 한정)

작품접수

- 일시 : 2024. 7. 15.(월) ~ 8. 14.(수) 18:00까지
- 작품규격 :
 - 일반사진 : 11×14인치 (약 27.94cm×35.56cm) 사이즈 사진
 - 모바일사진 : 8×10인치 (약 20.32×25.4cm) 이상 사이즈 사진
- 제출서류 :
 - 일반사진 : 출력 사진 및 참가신청서 현장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 후 JPG 원본파일(4M 이상)은 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
 - 모바일사진 : JPG원본파일(1M 이상) 및 참가신청서 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
- 등록비 : 없음 (1인 2작품 이내)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광주건축사회)